

# 후퇴하는 '박근혜복지' 국민반발 부르나

##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무상보육 핵심공약 기로에

### 靑, 복지축소 기정사실화...여권도 대국민 설득 난감

기초연금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 기미를 보이면서 파장이 확산할 조짐이다.

당장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청와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여당도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른바 복지 어젠다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이 파문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청와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지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따라서 대국민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권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복지공약은 일제감치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 공약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게

에초의 공약이었는데,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발표에서 후퇴 쪽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실현하는데 새 정부 임기 동안 6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한 핵심 복지공약의 하나로 꼽힌다. 4대 중증질환 진료

료를 정부가 대거 부담하면서 환자 본인의 부담을 크게 낮추려왔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였지만 환자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가 급여대상에서 빠졌다.

또 다른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 문제도 재원 부담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는 등 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23일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취소하고 이 부분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국민의 실망감이나 민심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는 부분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지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기초연금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재정 형편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10·30 재보선 '일진' 준비 본격 나서

## 새누리, 2곳 공천 신청자 일괄 면접 민주, 화성갑 후보 손학규 차출설도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에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10·30 재·보선을 한달여 앞둔 23일 여야가 '일진' 준비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군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19명을 상대로 일괄 면접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을 기존 7명에서 정윤숙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태식 부산외대 겸임교수 등 2명을 추가해 모두 9명으로 늘렸다.

고희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별세로 보궐선거 대상이 된 화성갑에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성희 전 의원, 고 전 의원의 외아들 고준호씨 등 총 5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는 이춘식 전 새누리당 의원,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서장은 전 서울정무부시장, 조재정 당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 등 14명이 무더기로 공천을 신청했다.

공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 출연해 "2곳 모두 여권 강세지역이기 때

문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6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후, 27일부터 면접을 거쳐 최종 공천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박기춘 공천심사위원장은 "후보의 정책과 면접 점수, 당 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특히 화성갑 후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세균계의 오일용 현 지역위원장이 공심 출마표를 던져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는 손학규 상임교원의 '구원등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손 교문의 출마문제는 아직 당내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대항마로 경기지사 출신의 '손학규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채동욱 사흘째 연가 정정보도 소송 준비?

대검찰청은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자신을 둘러싼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 18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채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다시 연가를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취임 이후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채 총장의 연가는 최대 2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 채 총장은 현재 모처에 집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의 감찰 불응과 사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이르면 이날 중 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휴가 끝난 뒤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정보도 소송 외에 채 총장이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 채 총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 후퇴 대국민 사기극"

### '65세 이상 월 20만원 일괄 지급' 원안 관철키로

민주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제도'가 애초 원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을 나섰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 대

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초연금 공약이 대선 승리만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집권 1년도 안 돼 대 선공약들을 무효화한 대국민 사기극

의 본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노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금 와서 한다면 참 나쁜 대통령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강기정 의원도 "약속 이행을 자신 선공약들을 무효화한 대국민 사기극

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며 "믿음과 신뢰로 맺은 국민과의 계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거론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안이 나오면 이를 백지화하고 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고 대통령 공약을 민주당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섭 의원 노력으로 화장실이 깨끗해졌어요"

### 신창초 학생 등 감사패 수여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이 23일 신창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등교장단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학교 고충 해결을 위해 교육 특별교부금 12억원을 확보해 신창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창초등학교의 경우 신축 당시 화장실 설비 문제 등으로 약취가 심하고, 환경까지 열악해 일부 학생들이 대소변을 집어까지 가져 보고 오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 측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지역구인 이 의원



이 직접 나서 교육 특별교부금을 확보, 화장실 개선 사업이 이뤄졌다. 이번 사업에는 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좌변기와 비데까지 설치되는 등 학교의 모든 화장실이 개선됐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배변에 대한 불편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이 있었지만, 이번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실 개선 사업에 앞장 서 준 이 의원께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감사패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 |  |   |
|--|---|
| <b>지상5층</b> →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b>지상6층</b> →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 <b>지상7층</b> →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b>지상8층</b> →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 <b>지상9층</b> →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b>지상10층</b> →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 <b>지상11층</b> →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b>지상12층</b> →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 |                                   |                            |
|-----------------------------------|----------------------------|
| <b>본관 1층</b> →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 <b>별관 2층</b> → 한정식 분양중     |
| <b>본관 2층</b> → 브랜드피자 분양중          | <b>별관 3층</b> → 별관 3층       |
| <b>별관 1층</b> →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 <b>별관 4층</b> →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
| <b>지하 1층</b> →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                            |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